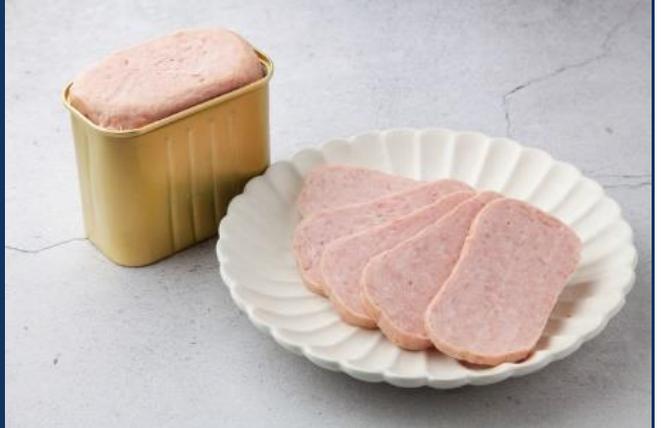


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

한국산
닭고기·수산물·꿀 제품
유럽연합 수출 자격 유지



EU의 동물성 식품 항생제 규제 강화 조치에도 한국산 닭고기, 수산물, 꿀 제품 수출 자격 유지

2024년 7월 18일,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(EU)의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관련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,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함(최종 발표 2024년 9월 예정)

1. **배경** :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 건강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됨. EU는 동물에서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항생제 사용을 보장하며, 이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수립함.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고자 「동물에 대한 특정 항생제 사용 금지 및 제 3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 동물에 항생제 사용 금지 초안 규정 (EU) 2023/905」을 신설함. 이에 따라, 2023년 5월부터 수입허용국가 98개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행하였고, 2024년 6월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 72개국(목록)을 선정함. 한국은 1차 목록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, 해당 목록은 2024년 9월 최종 확정될 예정임. 2년 뒤인 **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만 유럽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음**

2. 주요 내용

- EU로 수출되는 식용 동물 및 동물제품에 성장 촉진용 및 인체 치료용 특정 항생의약품 사용을 금지
-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평가 후 수입허용국가 최종 확정(2024년 9월 예정)
- **2026년 9월 3일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 수출 가능**

1) 항생제 내성의 위협

- 항생제 내성은 공중 보건에 큰 위협으로 간주됨
- 항생제 내성 확산을 방지하고, 동물에서 항생제 의약품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본 규정의 주요 목표임

2) 금지 사항

- 성장 촉진제나 생산량 증가를 위한 항생제 사용은 과학적으로 항생제 내성을 촉박할 수 있으므로 금지함

3) 국제적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

- 제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동물 및 동물 기원 제품에 대해 성장 촉진이나 생산량 증가를 위해 항생제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, 인간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. 이는 공식 인증서로 확인되어야 함

4) 의약품 혼합 사료

- 의약품 혼합 사료를 통해 동물에게 항생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함

5) 통제 시스템

- 제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동물 및 동물 기원 제품에 대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, 기존의 EU 공식 통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함

6) 규정 적용 대상

- 식용 동물 및 인간 소비를 위한 동물 기원 제품
- 동물성 제품 제외 대상

① 젤라틴, 콜라겐, 고도로 정제된 제품, 복합제품, 야생동물, 곤충, 개구리, 달팽이, 파충류 등

② 단, EU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운송중인 동물 및 식품, 사람이 섭취할 수 없는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,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 분석 및 품질 테스트용 샘플은 해당되지 않음

7) 수출 가능 한국산 동물성 식품

- 열처리 닭고기 제품(삼계탕 등),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식품(김치, 라면 등), 꿀 제품 등

세계적 수준의 한국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 인정 및 유럽연합의 규제 장벽 극복 사례

유럽연합은 동물 항생제 사용을 2030년까지 50% 감소시키는 목표를 수립하고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 유래 제품에 강화된 항생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.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, 시설조건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국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. 한국은 관계 부처 합동(식약처·농식품부·해수부)으로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의 우수함을 증명함. 이를 통해 **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에 선정되어 수출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**

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의 수출자격 유지는 2023년 12월 삼계탕 수출 협상 타결에 이어 또 다른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, 유럽연합 외 다른 국가로 한국 식품 수출의 진출 동력을 확보함. 한국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밝힘

출처

EUR-Lex,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(EU) 2023/905, 2023.02.27

AGRINFO, Provisional list of non-EU countries compliant with new EU antimicrobial requirements, 2024.07.03

식품의약품안전처, 우리나라 닭고기·수산물·꿀 제품 유럽연합(EU) 수출 자격 유지(보도자료), 2024.07.18